

# “챔스필드서 야구 보고 관광해야죠”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외래 관람객 10명 중 6명은 광주에서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구 관람뿐만 아니라 관광지 방문의향도 밝힌 응답자도 절반에 달해 야구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가능성도 확인됐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송정역~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광전리더스인포’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외래방문객 특성과 연계관광 활성화 방향’ 보고서에서 야구장을 찾은 외래 관람객 1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9.4%가 경기 뒤 광주에서 숙박하고 돌아갔다.

설문조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4차례 열린 프로야구 경기 전후 이뤄졌다. 남성 관람객은 접근성과 편의성 위주로 숙소를 선택해 모텔·호텔·게스트하우스

## 광전연 ‘챔스필드 외래방문객 특성’ 보고서

외지인 10명 중 6명 숙박...54.1% “관광 의향 있다”

40대 5·18 유적...20대 동명동 카페거리·송정역시장 順

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편의 증진 필요

우스 순으로 숙박시설을 선호했다. 여성 관람객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했다.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호텔, 모텔 순이다.

야구 관람이 목적이지만 응답자의 54.1%는 관광 의향도 있다고 밝혀 연계관광 상품화 가능성도 드러났다.

연령별로 40대 이상은 연계관광에 적극적(69%)이었으며 2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경기 관람 다음날 오후 전이나 오후에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광주근교(1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3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관광지는 달랐

다.

40대는 5·18 유적지(29.6%)를 1순위로, 20대는 동명동 카페거리(16.4%), 충장로(16.4%), 1913 송정역시장(14.9%) 등 주로 지역 핫플레이스를 가고 싶어 했다.

외래 관람객의 1회 관람 시 지출비용은 20만원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10만원대 34.7%, 30만원대 14.7%였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포털 검색어 입력 빈도에서도 지역 관광자원 중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7년 9월 월간 검색 건수가 챔피언스필드는 3만1140건에 달했다.

반면 1913송정역시장은 2만2130건, 양림동 팬관 마을은 2만450건, 아시아문화전당은 39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스포츠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관광정보를 야구팬의 취향과 동선에 맞춰 편집해 제공하고 프로야구 관람형 스포츠 관광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정팀의 연고지에 따라 외래방문객의 거주지 상관성이 높고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다른 만큼 관광프로그램도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옥 책임연구위원은 “외래방문객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 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래방문객 전체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관람형 스포츠 관광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섬진강 재첩 생산량 15년만에 3분의 1

하류로 흘러드는 물 줄어 염도 높아진 탓

섬진강의 재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하류로 흘러드는 물이 줄어든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대표)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 유역청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재첩 생산량이 15년 전 646톤의 1/3 수준인 202톤으로 줄어든 것은 하천유지용수 부족 때문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섬진강 상류에서 각종 용수를 배분해 하류에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염도가 높아져 하동지역 재첩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에서 전북지역에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를 공급한 후 하류로 하루 8만톤을 보내고, 주암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 후 하루 41만톤을 하류로 내려보낸다.

하지만 이 49만톤 중 다압취수장에서 40만톤을 취수하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인 하동지역에는 하루 9만톤만 흘러가게 된다.

재첩은 주로 섬진강 하구에서 다압취수장 인근에 서식하는데 하천유지수량이 적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강물의 염도가 높아져 재첩이 폐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섬진강 수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면서 “섬진강 생태환경과 수량, 염도 등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섬진강 염해 문제는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진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안”이라며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오늘 오전 공론조사 발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을 내놓는다.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19일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발표 전 공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46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에 지난 17일부터 ‘절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속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 목포 출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보건의약국 큰 아들, 목포중 수석 입학·중2때 서울 전학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약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목포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목포가 고향인 유 후보자는 목포에서 유명한 보건의약국의 큰 아들로, 고인이 되신 부친 유재열씨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목포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유 후보자는 목포 중앙초등학교를 거쳐 목포중학

교에 수석 입학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청원중학교로 전학을 간 뒤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유 후보자의 동생 유대석씨는 조선이공대학 교수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한국화의 거장인 유산 민경갑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출입기자들에게 유

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은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일한 곳이다. 한옥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청장 김중진)은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과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등 총 7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은 호남의병의 대표 머슴의 병장이었던 안규홍(1879~1910)과 그의 부대 군량관이었던 박제현(1871~1909)이 살았던 법화마을에 있는 주거지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머슴을 했던 사람재와 군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은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菊圃 金태균이 1920년대 건립)을 1987년 곡성으로 옮겨 지은 건축물이다. 전통한

# 문화재 등록 예고

옥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근대 건축기법을 부분 적용해 한옥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부 허건(1907~1987) 화백의 제자이자 남종화의 거장 아산 조병원(1922~2014)의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용공간으로도 가치가 높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전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6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인으로 무관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장 등 고려
- ◆ 선발 인원 : 0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로)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21일(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7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식 수여식 : 2017. 12.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 (12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유면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 010-8867-6143

**IV.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관련서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